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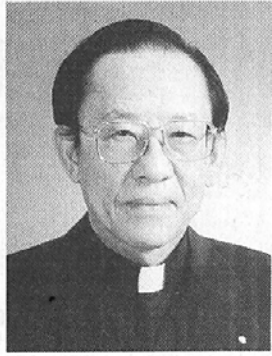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 특집

타종교 성직자 봉축 설법

부처님 오신 날도 크리스마스 날과 마찬가지로, 모든 불자들은 경축행사로 바쁘게 보낸다. 물론 인류의 제도(制度)를 위해 크신 길을 여

현세의 부정과 부패, 좌절과 타락을 비난한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사회적 부조리를 낫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김몽은 <대치동 성당 주임신부>



신 언덕을 기리며 경축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며 옳은 일이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진정한 부처님의 탄생을 잊지 않았다면, 그날 하루만의 경축은 불은 축제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런 뜻 깊은 날이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끝나듯 단 하루의 인연이 맺어 안 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인류제도 원력 퍼신 뜻 되새기며 집착 버립시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집착없이 살아갈 수 있는 담담한 심상이 되고, 제법무아(諸法無我)를 설하신 그대로 자아(ego)없이 살아갈 수 있는 슬기를 터득하여 무사(無私), 무욕(無慾), 무소유(無所有) 등 경지의 성숙한 인간이 되는 날이 와야 할 것이다.

현실 세계는 너무나도 인간을 비인간화해 놓고는 무서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타락된 퇴폐 문화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슬기롭게 실천해 갈 수 있으며, 제도종생을 구현시켜 갈 것인가?

지금 우리의 당면과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한다.

온갖 부조화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종교인들이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고 모범이 되어 어두운 사회에 등불을 밝히는 일뿐이다.

사회가 점점 극악해지고 살벌해지는데 대해 종교인들이 깊이 참회해야 한다.

바른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건인자 역할을 자임해야 할 것이며, 무겁게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에 모든 선남자 선녀들은 참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각자가 스스로 체득한 바를 빈자(貧者)의 일등(一燈)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는 것이다.

부처님은 탄생 당시 한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일곱번 돌고 사방을 보시며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하셨다고 보다는 다른 아기와

‘응애’ 소리는 대지혜일까

똑같이 ‘응애 응애’라고 울었을 것이다. 그 울음소리를, 깨달은 선사들이 ‘소리없는 소리’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들었을 것이다. 아기는 분발을 넘어선 주객미분 이전의 ‘무’의 경지, 진공무상 한기운에서 ‘응애’라고 소리쳤다. 그 무의 소리는 ‘나없는(無我)

변선환 <前 김리교 신학대학장>



의 절대평등의 세계에서의 이야기이다. 아기가 ‘응애’라고 토한 것은 주주신사가 ‘무’라고 토한 ‘무지(無字)’의 화두와 같다.

대상화된 자이나 부처란 객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은수선사는 ‘상불상조’를 주장하였다. 어느날 은수에게 참회의 대상인 부처와 조사를 죽이면 무엇을 할 해 참회하겠는가 물었다. 은수는 ‘노(露)’라고 대답하였다. 참회(신앙)의 대상이 되는 부처와 조사를 죽이면 전체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므로 ‘큰 삼매’가 아니겠는가 라고 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불자들은 기독교인에게 경건이나, 부처님과 예수가 왜 동

김재중 <천도교 교령>



순한 광광자이므로 인식하는 통념을 초월하여 민족정신문화의 ‘도량’이 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3·1운동 당시 천도교·불교·기독교가 연합하여 민족의 선두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3·1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민족통일의 성업

주(天主) 즉 인내천(人乃天)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현실은 무책임하고 방종적인 자유와 배급사상이 팽배하여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성은 깨어지고 말세적인 징후마저 노정하는 정신적인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

이 정신적인 사회적 병폐를 우리 종교인들이 그대로 좌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소위 ‘한국병’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사람의 심성을 ‘불성’으로 개조하는 일일 것이다. 신도들이 모두 보살이 되어 내면으로는 최고의 인격인 ‘불성화’가 되어야 하며, 외면으로는 ‘사회정의’를 실현하

불심으로 한국병 치료

제시하고있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대승불교로서 종성을 깨달음으로 이끌어 불성의 자리에 이르면 사람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발전적인 신앙체계를 갖고 있다.

불성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우리 천도교에서 말하는 시천

족으로 왔는가라는 본래적인 이유를 묻게 하며 진리의 근원을 향하도록 권한다. 불자들처럼, 우상숭배에서 벗어난 절대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도 “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불교와의 만남에서 열리는 새로운 가능성인

참회대상은 나로부터

종교의 비신화의 과정에 대하여 기독교는 겸손하게 스스로를 열어갈 것이다.

시절삼아서 아끼 부처님처럼 ‘응애’라는 소리를 토해 보라. 거기서 들리는 소리는 분별지(무명)일까, 반야의 무분별지(대지혜)일까, 증오일까, 대자비의 소리일까.

세속 도심의 생활을 떠나 잠시만이라도 산을 찾을 때면 명산이 아니라도 어렵지 않게 절이나 암자를 만나게 된다. 때로는 길이 험한 산골에서 단아하고 청정한 모습

량이었고 외적을 막는 전선이었으며, 이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간성이었다. 민족문화 창달의 토양이었다. 올해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은 더욱 큰 뜻이 있는

오충일 <군산 북음교회 목사>



듯 보인다. 탐심과 집념으로 종요속에 날로 증가하는 모든 악과 어둠이 안개가 걸히듯 사라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 50년의 민족사적 수치를 떨치고 평화로운 민족 공존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남과 북, 모든 해외 동포는 하나됨의 인연을 깨우치고 자비심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것이다. 지난 50년간 전쟁과

분단 50년 수치세월 벗고 자비로 민족통일 길 열자

의 절을 볼 때마다, 우리 사는 산하 어디서나 불심의 세계를 만나게 되고, 그 때마다 삼국 시대 이래 이 민족과 함께 해온 불교의 고마움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 민족으로 하여금 현세의 탐욕과 비명에서 자유케 하는 구도자의 길을 열어 왔던 것을 생각하면 웃음을 여미지 않을 수 없다.

중생에게 구도의 길을 가게 했을 뿐 아니라, 민족과 함께 애환을 나누는 불교는 때때로 이 민족의 침략에 맞서 의로운 싸움을 함으로써 민족을 지켜 왔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에 자리 잡은 절은 시대에 사는 이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도

원수 맺음과 쌓인 한들이 모두 잘못된 마음이 지은 것이니 줄 알고 온전한 마음, 바른 마음을 찾아 통일과 새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범죄로 병들어 가는 것과 함께 삼천리 금수강산이 모두 오염되고, 찢기고 탄식하고 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 자연마저 고통으로 탄식하고 있다. 탐욕이 지은 죄가 바로 우리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오심으로 온 누리가 크고 넓은 자비심으로 본래 자기 모습을 찾고, 제 생명을 찾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국사찰 정신도량화

에 앞장서 나아가야 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결의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는 참뜻이라고 생각한다. 불교계가 종정스님, 총무원장스님을 중심으로 더욱 화합하여 불교 발전에 정진 하실 것을 마음깊이 바라는 바이다.

봉 부처님 오신날, 온누리에 부처님 광명의 빛 가득하게 하소서 축

<p>정 각 사</p> <p>주 지 이 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p> <p>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 742-1231</p>	<p>진 관 사</p> <p>주 지 진 관 대중일동 신도일동</p> <p>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 ☎ 359-8410</p>	<p>약 사 사</p> <p>주 지 장 영 하 신도회장 황대덕월</p> <p>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32-1 ☎ 662-2551, 664-0311</p>	<p>대한불교조계종 계룡산 자광사</p> <p>주 지 이 원 행 대중일동</p> <p>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649 ☎ (042) 822-9219 / 팩스: (042) 822-9220</p>	<p>문화재 수리: 단청기능 708호, 도금기능 821호 탱화·단청·불상조성</p> <p>한국불교미술원</p> <p>원 장 정 규 진</p> <p>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6 ☎ 730-8072 (야) 648-0930</p>
<p>보 경 사</p> <p>주 지 진 현 대중일동</p> <p>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 (0562) 62-1117, 62-0149</p>	<p>일 봉 사</p> <p>주 지 박 대 선(연성) 신도일동 초하루 보름법회</p> <p>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 산 13-2 ☎ (0343) 73-6492</p>	<p>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p> <p>부설(관인) 영화유치원 회 주 송 월 주 주 지 평 중 대중일동</p> <p>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산 9번지 ☎ 444-4321, 7215</p>	<p>낙 산 사</p> <p>주 지 석 마 근 신도회장 김관음행 유치원 원장 정 문</p> <p>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 (0396) 672-2448</p>	<p>성 국 사</p> <p>주 지 덕 봉 신도일동</p> <p>서울시 도봉구 방학2동 산 400-16</p>
<p>신 흥 사 (청소년 수련원)</p> <p>주 지 오 성 일 신도일동</p> <p>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1 ☎ (0339) 57-2695/3916</p>	<p>청 룡 사 마야합창단</p> <p>주 지 김 법 운 합창단·신도일동</p> <p>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32-11 ☎ 612-0609</p>	<p>치악산 흥련암</p> <p>주 지 운 호 신도회장 김정숙</p> <p>강원도 원주군 소초면 교학2리 153 ☎ (0371) 45-0448, 731-0448</p>	<p>인 과 선 원</p> <p>주 지 정 덕 신도일동</p> <p>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57-2 ☎ 993-3706, 907-3706</p>	<p>서울 종로 대각사</p> <p>석가여래부촉법 제68호 용성진종조사 창건도량 조실경 주지 석가여래부촉법 제70세 법사</p> <p>부심 도문 선 덕 월남 경운 주지 무심 보광 법 사 각천 청정 노 전 보월 출 무 무진</p> <p>서울시 종로구 대각사 ☎ 765-0972 / 팩스: 742-2126</p>
<p>서울시립 목동청소년회관 (위탁운영제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p> <p>관 장 이 광 우 임직원 일동</p> <p>서울시 양천구 목동 918번지 ☎ 646-6815~9, 646-0181~5</p>	<p>성 불 사</p> <p>주 지 도 원 대중일동 신도일동</p> <p>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68-1 ☎ 400-5915</p>	<p>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 전문연구원</p> <p>회 장 김 재 일 회원일동</p> <p>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 732-1206</p>	<p>법안정사(목동큰절)</p> <p>회 주 김 효 경 포교원장 김 현 도 신도회장 원 숙 경 신도일동</p> <p>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2호 ☎ 646-4975 · 653-4888 / 팩스: 643-6136</p>	<p>관 음 사</p> <p>주 지 종 하 대중일동 신도일동</p> <p>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49 ☎ 582-8609</p>